

01 교회소식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

대전만민교회에서 열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교단 중부지방회 주최, 이수진 목사 초청 성령충만기도회 등 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마지막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이 아니라,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03 기획특집

기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자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통로인 기도의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04 간증

“나를 위한 주님의 권능의 손길~”

전혀 안 들리던 오른쪽 귀가 들리게 된 김두을 집사와 전갈에 물렸으나 이재록 목사의 원자기도로 치료된 콜롬비아 그리스도나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895호 2019년 6월 3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믿음 사랑으로 하나 되다!



### 중부지방회 주최, 이수진 목사 초청 ‘성령충만기도회’

지난 6월 20일 저녁 7시 30분, 예수교연합성결회 중부지방회 주최 ‘성령충만기도회’가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사진 1)를 강사로 대전만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되었는데 중부지방회 소속 대전, 공주, 사랑, 서산, 속초, 아산, 천안, 청주, 춘천, 충주만민교회 외에도 호남지방회와 영남지방회 지교회의 주의 종들과 일꾼,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참석하였다.

중부지방회 회장 길태식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서기 박재영 목사의 대표기도 후, 중부지방 지교회 담임 교역자 및 장로, 남·여선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팀이 은혜로운 특송(사진 2)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강사 이수진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림으로 응답받으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개기도와 찬양(사진 9)을 통해 결단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을 가진 뒤, 원자기도가 진행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가 기도해 줄 때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사진 3, 4). 구미 최환철 집사(사진 7)는 “왼쪽 눈의 동공 마비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였는데 기도받은 후 선명하게 보입니다”라고 간증했다.

수원 임선예 집사(사진 8)는 “한 달 전쯤부터 난청과 메니에르 병으로 인해 왼쪽 귀에서 웅웅거리고 통증도 있었는데, 기도받은 후 모든 증세가 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외에도 대전 류화선 집사(사진 5)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김은희 집사(사진 6)는 오십견을 치료받는 등 많은 성도가 기쁨으로 간증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중부지방회 회장 길태식 목사는 “선과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품어가는 권능의 종으로 나올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어 본 교회에 힘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나가는 중부지방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이재록 목사의 47개 언어 신앙서적 북미 대형 서점서 활발히 판매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전해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한국어 및 영어, 중국어, 태국어, 헝가리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등 번역도서가 아마존닷컴을 비롯한 북미지역 대형 서점에서 최근 활발한 판매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4, 5월에는 전월대비 약 10배의 큰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담은 대표적 설교집 ‘십자가의 도’를 비롯한 이 목사의 신앙서적은 현재 47개 언어, 464종으로 번역 출간되어 전 세계 서점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아마존닷컴의 ‘십자가의 도’ 북리뷰에서 ‘팁세드히’라는 독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제가 그동안 궁금해하던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명쾌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이 책을 읽었고, 그 내용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강습회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 교육부에서 주최한 ‘2019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강습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회 4성전에서 열렸다. ‘부활의 영광’(롬 8:18)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습회는 대전, 구미, 밀양, 천안 등 국내 지교회에서도 참석하였다.

첫날인 6월 17일(월) 저녁 7시 30분, 개강예배 시에는 길태식 목사가 ‘성경이 답이다’(전 12: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미영 목사가 <내게 가장 귀한 것>, 이관규 전도사가 <부활의 영광과 주교사의 사명>에 관해 강의했다.

18일(화)에는 정구영 목사가 <쉐마 이스라엘>, 이수진 목사가 <부활의 영광>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했고, 마지막 시간에는 교육부장 이미경 목사가 주교사의 마음 자세 등에 관해 전했다.

# 절제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큰 어려움까지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장 기본적인 죄들을 버리기 위해서도 절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인 절제의 열매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시작은 '사랑'이지만 마지막은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모든 열매를 온전케 하는 절제의 열매

절제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등 다른 성령의 열매에 비해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열매들을 적당하게 조절해 안정되게 하고 단단하게 지탱해 주지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모든 성령의 열매가 온전해지기에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혔다 해도 아무 때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충성을 할 때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명을 맡으면 시간을 잘 배분하여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하고, 아무리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모임이라 해도 끝내야 할 시간에는 끝내야 하지요. 이처럼 온 집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도 절제의 열매가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화평, 자비, 양선 등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맺힌 성령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항상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좇아 가장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하지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앞으로 나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이러한 분별과 조절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혔다는 말은 결국 그가 법사에 성령의 소욕을 좇아 온전히 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좇아 온전히 행하려면 반드시 절제의 열매가 맺혀야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통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 2. 절제의 열매가 맺힐 때 나타나는 증거

### 1) 항상 질서를 좇아 행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별하므로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압니다. 그러니 변론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오해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또한 격에 맞지 않는 일이나 분수에 지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선교회 회장이 총무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총무가 더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일을 변경해 추진했다면, 이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했다 해도 결국 절제가 없으므로 질서를 어긴 것이 됩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질서 상 머리 된 일꾼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좋아 보이고 모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도 질서를 어기며 화평이 깨진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위배된 비진리를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 질서에 따라 전체를 생각하며 순종하고 화평할 때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할 때도 대상과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전도나 심방을 할 때도 절제하며 대상에 따라 전할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말을 전하면 오히려 상대는 충만함이 떨어질 수 있고 판단 정죄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쁜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이나 은혜받은 체험을 장황하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상황에 맞게 절제하지 못하면 은혜를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실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듣고 있다 해도 마음이 급해 초조하니 간증이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 없지요.

또한 교구나 선교회 전체 상담 시간에 개인 간증을 길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함께 온 사람들의 시간을 혼자 쓰고 있으니 절제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 편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상대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 3) 주 안에서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일의 전후를 분별해 대응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기도 하지요. 선불리 판단 정죄해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의 말을 들을 때나 대답해야 하는 경우, 성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내용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그 말을 잘 파악해야 성급한 오해나 판단, 정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을 하는 상대의 의도까지 분별해 대응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성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곧장 반론을 합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그 순간 떠오르는 대로 반론하기보다는 바른 대답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의미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절제의 열매 속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도록 널리 나타내라며 적극 권합니다(요 7:3~5). 그들은 자기 생각이 앞서니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답답해 보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절제가 없었더라면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들의 말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며 절제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올라가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일의 전후를 분별해 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 3.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상대의 허물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떤 것을 요청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원해서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유도 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차분히 대화해 보면 결국은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고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진실을 분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절제하고 분별해 답변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만큼 말에 무게가 실려서 상대에게 권세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개함이 없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이루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할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 나가야 변개함이 없는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사에 자신이 앞서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은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가 많으면 사단의 음성이 먼저 들려옵니다. '그냥 두면 나를 우습게 볼 테니 단단히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지요. 설령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악한 생각이 압도적인 경우, 미세한 성령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부지런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만을 양식 삼아 나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듣고 순종할 때 점점 더 밝히 들을 수 있지요. 당장 내가 보기에 급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받은 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하지요.

이처럼 항상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할수록 더 세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여덟 가지 열매를 조절해 주는 것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또한 모든 성령의 열매가 절제를 통해 온전히 맺혀지기에 절제의 열매는 매우 중요하지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범사에 형통하고 보장받으실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 된 권세와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요령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뿐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축복의 통로인 기도의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 중심을 다해 기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 곧 마음과 뜻, 힘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세부터 다르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눅 22:39-44).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기록된 대로 중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평하며 원망한다. 믿는다 했다가도 의심하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믿을까 말까 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약 1:6-8).

### 부르짖어 기도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한 대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한 중심으로 소리 높여 간구한다는 뜻이다.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념이나 피

곤, 졸음이 틈탈 수 없으니 마음 중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다. 영적으로도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얻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창 3:19).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뚫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시험 환난이 물러가는 등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기도의 향을 천사가 담아 올리는데, 천사는 소리로 발해지는 기도의 향을 담을 수 있기에(계 8:3)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 높여 악을 쓰는 것과는 다르며,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적 있는 기도를 한다

어떤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빨리 성취할 수 있다. 반면 목적이 불분명하면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하므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회의가 와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아버리고 만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더욱 간절하게 인내로 기도하게 된다. 나아가 계명을 지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망

할 것이 없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요일 3:21-22).

혹여라도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신속한 응답과 마음의 변화도 이룰 수 있다.

###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

믿음을 갖는 데에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곧 행함이 따르는 영적인 믿음이라야 응답의 확신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응답하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큰 응답으로 함께하시

며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기도를 쌓아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 죄를 싸워 버리며 진리대로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히 11:6).

주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나라의 상급됨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상대방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다.

# “전혀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들리고, 왼쪽 귀도 좋아졌어요!”

김두을 집사 (71세, 3대대 23교구)



귀가 서서히 나 빠지더니 6년 전 즈음부터는 오른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귀도 그다 지 잘 들리는 편이 아니라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목소리를 크게 하여 제게 말을 해

줘야 했고, TV를 볼 때도 소리는 못 듣고 화면만 봤지요.

2018년 7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검사해 보니 오른쪽 귀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오른쪽 귀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왼쪽 귀에 보청기를 권유하여 착용해 보았지만 별 차이가 없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시간이 되면 좌측 벽 스피커 옆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꼭 응답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계속 들

으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제 모든 말과 행실을 삼가 조심하고자 했으며, 틈틈이 이웃에게 ‘만민뉴스’를 전했습니다. 올해 3월 초부터는 응답받고 싶은 간절함이 더해져 기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며 은사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금요철야예배 은사집회에 참석해 고질병을 치료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사타구니 부분에 습진을 앓아 몹시 가렵고 불편했는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이 단에서 기도해 주신 뒤로는 만성 습진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 치료를 위해 더욱 힘써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선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지요. 상대의 탓이 아닌 제 잘못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로 통회자복 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지요.

마침내 4월 26일, 금요철야예배 2부 은사집회에 참석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 다. 그런데 주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만민봉사대 대원으로, 주일 점심시간에 국수 봉

사를 합니다. 봉사를 마친 뒤 대원들과 모였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려 주거나 받거나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을 깨닫고, 왼쪽 귀를 막은 채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후 5월 15일,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연 완전히 상실되었던 오른쪽 귀의 청력이 70~80dB로 측정되고 왼쪽 귀도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배시간마다 스피커 옆자리를 찾아다니는 필요도 없고, 휴대폰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전보다 볼륨을 낮춰 들을 정도로 귀가 더 좋아지고 있어 너무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의무기록지			
수진자	김두을	주민등록번호	나이 6
주소	경기 고양시		
<b>특이증상</b> right deaf left 40dB 내원일: 2018년 7월 16일 11:55:02 조함:000000000000 중:7-128 담당의: 김형주 << C.C >> multiple ulcer << Diagnosis >> ▲ 기도받기 전 : 좌측 40dB,우측 청력 상실을 보이고 있음			

# “전갈의 치명적인 독이 성령의 불로 순간에 태워졌어요!”

2017년 11월 초, 엔라쎬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 방송)을 통해 우연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은 매우 명쾌해 마음이 시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밀려왔지요.

제가 찾고 바라던 말씀과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자막에 나오는 콜롬비아만민교회 주소를 보고 곧바로 주일에 교회를 찾아 갔습니다. 수도 보고타에



▲ 생태 보전 지역 안에 위치한 그리스띠나의 자택

위치한 콜롬비아만민교회까지는 제가 거주하는 메데진이라는 곳에서 차로 6시간 정도 걸렸지요. 하지만 교회에 등록하고 이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며 매일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신앙생활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천국 소망이 넘쳤지요.

그러던 중 2019년 2월 16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생태 보전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엔 전갈을 비롯한 여러 곤충과 짐승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지하를 청소하면서 상자를 옮기던 중, 갑자기 제 발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놀라 주변을 살펴보니 어지럽혀진 물건들 사이에서 전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전갈에 물린 것입니다. 이후 전갈의 독이 금세 혈

관을 타고 위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고,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크게 부르면서 휴대폰을 통해 당회

장님의 환자기도를 간절히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5분도 채 안 되어 극심했던 통증이 잦아들고 마비 증상이 이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제 외동딸도 2018년 6월, 장정연 담임목사님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뒤 우울증이 치료되는 큰 은혜를 받았지요. 이처럼 생명의 제단을 만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띠나 벨라스게스 성도 (56세, 콜롬비아만민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사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